

대구주보

연중 제17주일

2020. 07. 26. (가해) 제2224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마태 13,44)



『숨겨진 보물의 비유』, 렘브란트, 1630년경, 헝가리 부다페스트 미술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코로나 시대지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어야



성요셉요양병원장 | 김명섭 그레고리오 신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밭에 묻힌 보물’ 혹은 ‘좋은 진주’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보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때까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리면서, 하느님 나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늘나라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상이고 목표입니다. 하늘나라의 목표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신앙인은 세상적인 삶과는 구별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의 삶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삶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하고 희생하며, 인내하고 봉사하며, 이해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의 삶은, 신앙인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믿을 때에 그 어떤 대가(손해)를 치르더라도 현실의 삶 안에서 새롭게 선택되어지는 삶입니다. 밭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상인이 가진 것을 다 처분하여 값진 진주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보물과 진주를 사고 난 후의 삶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기에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삶을 꽤나 잘하고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오랜 기간 겪으면서 정말 잘하고 있었는가에 의문이 듭니다. 한때 종교집회가 금지되기도 했었고, 지금은 주일 미사가 재개되었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주일 미사 참례 신자수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아직도 종교집회를 통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방역당국에서의 ‘종교 소모임에 대한 자제’ 권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신앙의 삶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느님 나라’라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가치가 ‘건강’이라는 현실적 가치에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상황이 당분간 우리의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대처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신앙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의 신앙을 키우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각자의 삶에서 철저한 생활 방역을 준수하면서도, 신앙적 지혜를 발휘하여 우리 삶의 목표인 하늘나라를 향한 여정을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느님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코로나의 어려움이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이어지길 두 손 모아 청합니다. **평안**

우주적 친교

교구 비서실장 |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는 교구청 숙소 식당 앞에 비둘기 한 쌍이 집을 짓더니 교대로 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둥지가 웬지 허술하게 보여 걱정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드디어 새끼 한 마리가 얼굴을 내밀더군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던 아기 새는 서툰 날갯짓을 한 후에 결국 둥지를 떠났는데, 가까이서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알 속의 연약한 생명이 그렇게 하느님 창조세계의 일원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나니, 요즘은 창문 너머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웬지 더 정답게 들립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 공동의 집 지구에 사는 다른 지구들을 한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풀벌레 소리, 맑은 시냇물, 밤하늘의 별 대신에 자동차 소음, 콘크리트, 플라스틱이 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자연에 대한 감수성은 무디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가 넓어지고 건물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수록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는 멀어져 가는 것 같고, 우리는 점점 더 지구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채 자기중심적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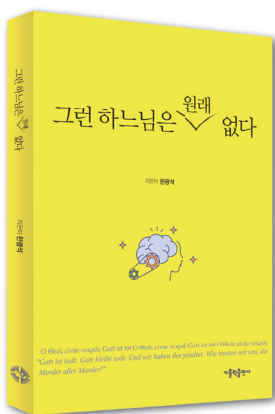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모든 존재와 결합시켜 주신 유대를 깨닫고 “우주적 친교”에 마음을 열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나와 가까운 몇몇 사람이 아니라 지구 공동체 전체와 일치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보라는 뜻이겠지요. 그렇게 우리

는 하느님의 피조물들과 친교를 이룰 때, 좀 더 충만하게 우리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인간은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느님, 타인, 모든 피조물과 친교를 이루어 살면서 관계를 맺을수록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며 거룩해집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러한 우주적 친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프란치스코 성인은 아무리 하찮은 피조물이라도 ‘형제’나 ‘누이’로 부르셨지요. 그리고 따뜻한 애정으로 그들을 존중하며 나에게 간혀있지 않고 너에게 열린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에게 이 창조세계는 인간의 이익이나 여가를 위한 ‘객체’가 아니라 하느님 사랑에 참여하는 ‘주체’였습니다. 인간과 다른 피조물은 ‘나와 그것(I-It)’이 아니라 ‘나와 너(I-Thou)’의 관계였습니다.

지구를 돌보려는 노력은 효율적인 ‘관리’에 앞서 친밀한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의 운명은 결국 우리와 지구 공동체가 얼마나 가까워지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쉽지만, 자신이 아끼고 좋아하는 존재는 돌보고 지켜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새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꽃향기를 맡는 일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하느님은 원래 없다



한광석 지음

256면 | 16,000원 | 가톨릭출판사

코로나 시대, 하느님의 존재를 묻는 이들에게 답하다

사상초유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 종교와 신이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를 되돌아보게 된다. 이 책은 무신론, 성경 속 하느님의 모습에 대한 오해, 자본주의 시대의 돈과 신앙, 성 윤리, 과학과 신앙의 상관관계 등 현대의 가톨릭 신자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하고 고민했을 법한 문제에 화두를 던진다. 그러면서 이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관찰하여, 독자들이 각자만의 의미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 준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의 돈과 신앙의 문제, 성과 신앙의 문제, 과학과 신앙의 상관관계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다. 만약 진정한 하느님의 모습을 찾길 원하고, 신앙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책이 도움을 줄 것이다.

완덕의 길



예수의 성녀 데레사 지음 | 최민순 옮김

408면 | 15,000원 | 바오로딸

시대를 초월한 기도 길잡이

이 책은 그리스도교 역사상 뛰어난 신비가인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남긴 글로서, 성녀가 창립한 첫 개혁 가르멜(뎀발 가르멜)수도원인 성요셉수도원의 수녀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故 최민순 신부의 번역으로 1967년에 초판이 발행되었고, 이번에 ‘다시 읽고 싶은 명작 시리즈’ 제13권으로 개정판(3판)이 나왔다.

성녀는 이 글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요청하는 회원들을 위해 썼는데, 수도생활과 영적생활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권고에서 신비 체험에 이르기까지, 겸손하면서도 대담하고 솔직한 이야기체로 가르침을 풀어나간다. 대(大)데레사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해 현대 신앙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성녀는 기도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지혜도 전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현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렵거나 의미가 모호한 표현은 일부 수정하거나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말 최초 번역본이라는 상징성과 가치를 살리기 위해 최민순 신부의 시적이고 유려한 필치를 최대한 보존했다.



윤유일 바오로 (1760~1795년)

‘인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윤유일(尹有一) 바오로는 1760년 경기도 여주의 점들(현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금사리)에서 태어나 이웃에 있는 양근 한감개(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로 이주해 살았다. 1801년에 순교한 윤유오 야고보는 그의 동생이고, 윤점혜 아가타와 윤운혜 루치아는 그의 사촌동생들이다.

양근으로 이주한 뒤 권철신 암브로시오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닦던 바오로는 그 후 서적을 통해 천주교 신앙을 차츰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스승의 아우인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로부터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으며, 이후 가족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데 열중하였다.

1789년 교회의 지도층 신자들은 북경의 구베아(A. Gouvea, 湯士選) 주교에게 밀사를 보내 그동안의 상황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때 밀사로 선발된 신자가 바로 윤바오로였는데, 그 이유는 그의 성격이 온순한 데다가 심지가 굳고 학식과 교리에도 밝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바오로는 1789년 10월 조선을 떠나 북경에 도착하였다. 북경에 머무는 동안 라자로회의로오(N. J. Raux, 羅) 신부로부터 조건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았으며 구베아 주교로부터는 ‘조선에 성직자를 파견하는 데 필요한 준비’에 대해 들었다.

구베아 주교는 조선 신자들과의 약속에 따라 도스 레메디오스(dos Remedios) 신부를 조선에 파견하였으나 조선 밀사들과 만나지 못해 조선에 입국

할 수 없었다. 윤바오로는 이에 실망하지 않고 지황사바, 최인길 마티아 등과 함께 성직자 영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1794년 말에는 마침내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조선에 잠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주문모 신부가 입국한 뒤, 윤유일 바오로는 북경 교회와 연락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신부의 입국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된 모든 신자들이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박해자들은 마침내 신부의 입국 경위를 알게 되었고 신부의 입국을 도운 윤유일 바오로와 지황은 즉시 체포되어 앞서 체포된 최인길과 함께 혹독한 형벌을 받았으나, 결코 신부의 행적을 발설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굳은 신앙을 고백하였다. 그러자 박해자들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사정없이 그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비밀리에 그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렸다. 이때가 1795년 6월 28일(음력 5월 12일)로, 당시 윤바오로의 나이는 35세였다.

이후 구베아 주교는 조선의 밀사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고는 윤바오로와 그의 동료들이 순교당시에 보여준 용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공경하느냐?’는 질문에 용감히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모독하라고 하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기보다는 차라리 천 번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1열왕 3,5-6 7,7-12	제 2 독 서	로마 8,28-30	복 음	마태 13,44-52.
화 답 송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교구장 동정



총대리 동정

7. 19(일) | 자천공소 농민 주일 미사 및 농작물 축복식 7. 19(일) | 부계공소 농민 주일 미사 및 농작물 축복식

7월 1일자로 발표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동안의 새로운 교구 지침’ (요약)

1. 어린이들과 어르신들, 직업상 감염의 우려가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주일미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2. 신자들의 영신적 유익을 위하여 평일에도 미사를 봉헌하며 성모당은 7월 9일(목)부터 평일미사를 봉헌할 것입니다.
3. 어린이미사, 학생미사, 청년미사 등을 본당 여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재개하기를 권고하며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주일미사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길 바랍니다.
4. 본당 여건에 따라 필요한 첫영성체, 견진을 비롯한 기타 교육 등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최대한 실시토록 합니다.
5. 세나투스 월례회의 건의에 따라 (낮과 저녁) 평일미사 전이나 후 ‘합동주회’를 갖기를 적극 권고합니다.
6. 그 밖의 신심단체는 작은 교리실에서의 소모임을 피하고 성전이나 강당 등 넓은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며 월례회 모임을 가지도록 합니다.
7. 본당 여건에 따라 실시되는 일괄고백과 일괄사죄 예식에 참여한 사람은 판공성사를 본 것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계속 방역수칙 준수는 철저히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27일(월) 11:00 도량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7월 28일(화) 19:30 다사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27일(월) 11:00 계산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7월 후원회미사는 없습니다.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7월 28일(화) 14:00 신암성당	—	—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자 초대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53-1773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8.2(일) 9:3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대상: 만 19세~만 35세

문의: (010)9937-0901

성모 승천 전례 피정

일시: 8.14(금) 16:30~16(일) 13:30

장소: 왜관피정의집

참가비: 19만원, 대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 (010)6791-0071

신천지 및 유사 종교(사이비) 침투를 조심합니다!

신천지 및 각 유사종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신자로 위장합니다.

포섭 활동을 유도하면 신천지 및 유사종교 신자로 의심하고

본당 신부님, 수녀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의 QR코드를 통하여

교구청 홈페이지의 “주의! 유사종교” 칼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아정형외과에서 발 건강의 싹을 틔우세요.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발목내시경, 족저근막염, 시간신경증, 평발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발발 친구)

수성구 황금내거리에서 롯데캐슬빌딩 500m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황반변성

대표원장/의원박사 (현 연세대 외래교수) **박종원** (소시모)

안과전문의 **장주현** (비비안나) · 이무일

효성병원 옆 대동M타워 4,5,6층

☎ 053)626-8881~5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춤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 루카

보건복지부 지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T. 555-5520

죽전네거리 서남시장 맞은편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곽재혁신경과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053-255-2211

신남역(청라안덕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오로)

하중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컴퓨터 & 모바일 전자제품

컴퓨터, 외장하드, 보조배터리

USB 제품, 공유기, 블루투스 스피커, 핸드폰 관련, 각종 케이블

우성네트웍

전명환(아브라함) 053-604-3171

대구시 북구 유동단지 전자빌 2층 71호

암·재활·소화기·통증·건강검진

Happy! 3인인병원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입구 | 대표전화 **053)670-6000**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한성희(디오니시오) 신부
1981년 7월 26일

행사 | 모임

바느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7.30(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제1대리구청 1층 강당

예비신학교 하계 사제성소 피정

중3~고2: 8.9(일) 9:00~17:00
장소: 교구청 및 성모당
고3~대학·일반(입시반): 8.13(목)~15(토)
장소: 한티피정의집
자격: 예비신학교 등록생
신청: 각 본당사무실 / 마감: 7.26(일)

교육 | 모집 | 기타

2020년 2학기 신학성경과정 수강생 모집

성경입문, 신약성경과정, 구약성경과정,
신학입문, 신론, 철학, 마리아론,
동양고전, 그리스도교와 불교, 철학과
그리스도교 등 / 개강: 9.1(화)
문의: 가톨릭신학원, 660-5105

2021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김정우 요한 신부) 수시 모집

모집인원: 3,017명(수시 2,635명)
정부지원사업비 연간 약 250억원

학생의 미래에 투자하는 대학

가톨릭추천전형 31명 / 문의: 850-2580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방송시간: 금, 토 14:00~15:00
강사: 7월_이성웅(세례자요한) 신부
8월_권미나(도미니) 수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C.P.E.(임상사목교육) 교육생 모집

일시: 8월 말~12월 중순 10:00~17:30
매주 화, 목, 토요일 그룹(선택)
대상: 자신·타인 돌봄에 관심 있는 분
비용: 80만원(선착순 8명)
문의: 성바오로CPE센터, (010)4143-5508

신구약성경 강의와 마음에 말씀담기

접수: 7.26(일)부터
장소: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내
구약: 창세, 탈출, 레위, 민수, 신명
신약: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구약반: 화(밤), 목(낮) / 신약반: 수(낮)
문의: 포교베네딕도수녀회, (010)2512-4627

2020년 재속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대상: 만 53세 이하의 가톨릭 신자
마감: 8.22(토)
문의: (010)3440-0304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후원: 대구은행 505-10-218514-9
문의: 650-3529

용평마을 무료양로원 입소어르신 모집

대상: 해준 밥 드시고 싶은 어르신
말벗이나 친구가 필요한 어르신
노후의 편안함을 즐기고 싶은 어르신
주소: 영천시 화산면
문의: (054)334-2006

채용 | 안내

청도성모솔숲마을 자연치유센터 오픈

대상: 자연 속에서 휴양이
필요하신 분(암 환자 환영)
문의: (054)373-3955
(010)5225-453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광고게재일: 8월 16일 / 12월 27일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치질수술 / 내시경(위·대장) / 건강검진

딱! 좋은 병원

날씨원한 위대행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노성균 안우구소치노

하마의사의 건강벨트

www.hangmuns.com 대구 북구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T.053-959-7175 F.053-959-7577 P.010-9597-7175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상담 및 청력검사 문의 053)257-8588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대한 뇌전증 학회장
대구 경복치매 연구회 회장 역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장 윤 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이데오피스·문구

Canon 흑백복사기 60,000원/월
Canon 컬러복사기 90,000원/월
복사용지·문구류 무료배송

흑백복사기(A3) 중고 기증 가능

053)756-0949 대표 황현진(필립보)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방판(지붕개량)
집수리 및 인테리어

김원(토마스) 010-5623-9001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 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정신치료를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궁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